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9호 [무계 제25402호] 주제 105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장봉훈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박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공장
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평양시교외
의 명당자리에 공장부지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공화국창건기념일
인 9월 9일까지 공장건설을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판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해당 부문의 일꾼
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으므로 짧은
기간에 보건산소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로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용조건이 유리하고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울창한 수림속에 일떠선 보건산소
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컴퓨터화
되었으며 병원들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산소를 받아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생산 및 공급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담하고 정갈한
보건산소공장의 전경을 훑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공장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공장을 멋쟁이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건설자들이 담에서
 정해준 낱자에 공장건설을 끝내느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
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조선로동당
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에서 생산
을 시작하여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공급하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
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
는 것이지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지만 보건부문사업에 선차
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는것
은 우리의 보건이 사회주의
제도의 얼굴이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
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때문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산소분리
기장, 기제산소증진장, 산소공급소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
과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
장을 정말 멋들어지게,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
리게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의료용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리게
진물장식을 특색있게 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생산체제를
 훌륭히 구축하였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
증진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마다에 현대
적인 설비들도 그르히 갖추어놓았을뿐만아
니라 의료용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해놓았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병원들에서 의료용산소를 받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지만 산소공급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하시였는데 미학성,
편리성, 실용성의 원칙에서 산소공급소를
홍잡음에 없이 잘 건설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산소공급소에 풀지어 세워놓은 산소
병들이 불만하다고 하시면서 산소병마다
에 그것을 리용할 병원들의 이름까지
 새겨넣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
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껴고들며 시설물
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위생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질 좋은 산소가 공급
되도록 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움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
하시시고 공장을 건설하시면서 얻은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들에도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일떠세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산소를 팽팽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년간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오르고있는 속에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도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보건
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
 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려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보건산소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보건산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지도반



주체의 핵외성을 높이 올린 민족사적대승리를 고조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자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안남도, 남포시군민련환대회 진행

【평양 9월 14일합 조선중앙통신】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안남도, 남포시군민련환대회가 1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다시한번 주체의 핵외성을 높이 올림으로써 민족사적대승리를 이룩한 지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커다란 환희와 민족적 긍지에 넘쳐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줄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 온 군중들로 차넘치고 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탄생!》,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일동지 탄생!》라는 구호문구가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무궁도록 번영할 김정일동지의 새일을 앞당기자!》, 《백두산대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문구와 글말들,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평안남도, 남포시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

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발길음》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도당위원회 위원장 박태성동지가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서 낭독하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호복, 조선인민군 장병 리홍실, 평성성탄공업대학 강좌장 김영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분찬호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된 정의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은 주체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대의 특대사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결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전해주고 목숨이온 민족사적대승리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베푸신로 수놓아오신 자주와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뜻깊은 올해의 시작

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열어제끼시고 또다시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으로 이끄시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수호를 위한 핵무기개발화사업을 전두에서 이끄시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절대적인 필승의 보증을 마련해주고 우리 조국을 불멸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쳐주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적방위력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민의 전체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투에 계시기에 천만대적이 떨떠머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진단검의 생세, 발매가 되

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용호보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도인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민족사적대승리를 더 큰 승리로 고조시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면과제는 일일단검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이 강화될수록 핵무기산출현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백배강군의 위력적강한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감으로써 미제와 남조선피화들이야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던 천주들의 승용을 단숨에 끊어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의 핵강국의 지진인민 군지와 자부심을 안고 도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과학기술의 불길음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세계를 놀라우고 주체조선의 무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 과학기술적성취들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분발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청년들이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후대, 이속후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남포시에서

남포시군민련환대회에서는 강령모사당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서 낭독하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홍순길, 조선인민군 장병 권기훈, 국가과학원 핵공학연구소 소장 김희, 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박영진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기상을 높이 달고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핵외성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뜻깊은 올해의 공화국창건기념일에 하는가능이 올려져진 장대한 핵외성은 주체적인 핵공격능력의 무전막강한 위력에 대한 인내 시위

며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부정해보려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정수리를 내리친 또 한차례의 준엄한 철수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번의 핵탄두폭발시험을 통하여 불멸의 군사강국, 당당한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혁명무력의 핵공격능력이 비상이 높아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인민군군인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무비의 당력과 배움을 지니시고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용호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인민군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전진단검의 천연요소가 되고 무의방백가 되어 당중앙위원회와 군수산대대양중진들 결사옹위하며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의 면 앞장에서 새로운 전위회복의 기적용호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

였다. 그들은 시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사상선, 두뇌선의 드센 열풍으로 국방공업발전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동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연승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세계를 경탄시킨 핵탄두폭발의 장대한 피시인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탄생소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함께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두가 최세의 천출취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친 전쟁관철을 위한 용진군에 산악같이 밀착한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은 겸손하면 된다》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강철증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 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강철증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4일에 진행하였다.

모임에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봉우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화답하여 강철증산의 장대한 동용을 세차게 올려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당과 수령을 강렬로 받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풍을 떨쳐 이어나가고있는 연합기업소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핵무기개발위원들의 품속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핵심부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로 자라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를 땀날, 한발맞춤으로 내달려 지는데 같은 시기에 비하여 수월히 생산한 6.3배, 강철 생산은 6.5배, 압연강재생산은 2.5배로 장성시키고 치열한 백열전이 벌어지는 려명기리전투들과 중요공업부문들에 수없는 철강막을 보내주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에 펼쳐진 선 강선의 로동계급을 위대한 선웅인민들의 사상과 업적을 숭고수호하려는 열화같은 총정으로 선장의 피를 끓이며 우리의 전진성을 가로막는 온갖 도덕적과 난관을 자력자강의 쇄목으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합히, 용맹전하였다고 축하하였다.

축하문은 연합기업소의 생명력을 지켜온 보신제철소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실비내내 단가중, 만부철을 길기 위하여 고열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보보수전투를 벌였으며 현행 생산이 긴장한 속에서도 연로 소비량을 줄이면서 로의 열효율을 높일수 있는 선진기술을 연구 도입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가스발생로직장, 석회로직장

로동계급은 설비관리, 기술관리 등 따르며 계속 전진하고 기 능이 비약하여 천리마의 기상, 강선의 불화가 만리마의 기상, 사회주의강국의 속도로 이어지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철강생산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걸칠기 요구되는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을 늘려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면하여 함경북도의 관동피해복구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사회주의대강국의 존엄을 일제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로동자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용진군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화답하여 강철증산의 장대한 동용을 세차게 올려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당과 수령을 강렬로 받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풍을 떨쳐 이어나가고있는 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천리마를 탄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강철증산의 승전포성을 높이 올리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모임에서는 지대인 김현일, 보신제철소 초급당위원장 장문석, 연, 강철직장 직공장 박인신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핵무기개발위원들의 품속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핵심부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로 자라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 평양326전선 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화답하여 강철증산의 장대한 동용을 세차게 올려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당과 수령을 강렬로 받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풍을 떨쳐 이어나가고있는 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에서 천리마 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4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동동지와 공장일군들, 총연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동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핵무기개발위원들의 품속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핵심부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로 자라난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의 첫시작부터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용맹을 떨치고 세 기둥, 세 기둥을 장조하기 위한 철야근을 힘있게 다그쳐 기대마다에서 만가동, 만부하의 동용을 높이 올렸으며 《하나의 전세를 위하여, 전세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구호를 서로 배워주고 배우는 기풍을 발휘하여 고대당 생산실비를 250%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중의 신심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여내는 혁명적사상공세와 본보기직장을 따라 배우고 따라오기 위한 맹렬한 경쟁열풍, 아전행치위생원들의 박력있는 헌양지위는 로동계급의 열정과 기세를 뒤흔트리고 장조와 비약의 나열을 말아준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공장안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기세 말보로 되었다.

은 나라 방방곡곡에 금수히 과급되는 현대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과들과 우수준승취열 열매에서는 로동자대의 기범이적창조물들, 세인을 경탄시키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기적들과 주체조선의 무전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특대사건들에 핵무기의 곁합은 공적정신과 자력자강의 마지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억척같이 떠맡았은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의 베풀어준 총정과 애국헌신의 구슬땀이 뜨겁게 솟아

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철풍같이 내달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당적창조의 동향흔을 부르고 기적창조의 정신을 견결히 보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대인 김석남, 직공장 김상희, 로동자 활판박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동격전에서 자강력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는 천행단위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 국산화를 현대화의 중핵으로 틀어쥐고 능력화공사와 첨단기술개발을 적극 다그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례없는 증산투쟁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전철의 필요한 각종 전선들을 최우선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붙어 민족공적, 계속전진함으로 세 뜻깊은 올해의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세와 본래를 남김없이 펼쳐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기적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4일에 진행되었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와 공정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수길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핵무기개발위원들의 품속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핵심부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로 자라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일분발하여 날여나오게 되니, 세 기둥을 장조하여 정경공업부문의 댜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공정의에서는 4년, 3년분회 환수자들과 수십명의 2년분회 환수자들과, 450여명의 년간분회 환수자들과 비듯한 세 세대 만리마가수들이 배출되었으며 수십명의 부부혁신자, 자력혁신자, 양동이혁신자들과 단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웅적소형의 주인공들로 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핵무기개발위원들의 열화같은 신뢰를 간직하고 200일전투의 선봉에서 사회주의수조건의 제1선창조,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연구를 지켜낸 핵심부대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증산투쟁, 창조투쟁, 핵공격전으로 당 제7차대회의 정신을 견결히 보위하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과 일군들을 높이 축하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대인 민인홍,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 초급당위원장 리영철, 직로종합직장

직로종합직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공정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과 함께 가신다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현명성 인민사령의 길을 견고결고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열풍을 높은 생산성과로 깊이 빛내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면하여 전당, 전군, 전민을 함경북도 관동피해복구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화답하여 강철증산의 장대한 동용을 세차게 올려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당과 수령을 강렬로 받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풍을 떨쳐 이어나가고있는 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에서 핵무기개발위원들의 품속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핵심부대, 혁명적대교조의 자랑스러운 주인공들로 자라난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하루하루

무한한 헌신성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승리가 우리의 힘과 기운, 우리의 천리로 마련된 고귀한 열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제나 생산능력에서 선구자의 기상과 본래를 떨치는 가스창조적창과 수지마제창의 로동계급은 설비마다에 단가중, 만부하를 길기 때릴 전투적열풍 넘쳐 수행하였으며 후대의 장에서도 생산공정에 밀착시킨 조선민체의 최전진관직공급기계를 제작도입하여 후대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산공정용전기장악형, 로력집약형으로 개조된 대한 당정책을 인민당적 증산투쟁과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정춘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17건의 발명과 창의고안을 내놓고 어려운 전투과제들을 도맡아 수행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 놓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가 높이 휘날려나오게 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체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총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이 펼쳐나 주체비료를 높이 쌓아가고있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4일에 진행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동부총리와 관계부총, 연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로동부총리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에서 자력자강의 선구자들로 억척같이 자라난 남흥의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장대한 포성이 울린 첫시작부터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래를 힘있게 과시하며 농업전선에 많은 주체비료를 보내주는 눈부신 전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세운 혁명적 열풍은 우리 당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가려는 남흥로동계급의 불타는 총정과

무한한 헌신성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승리가 우리의 힘과 기운, 우리의 천리로 마련된 고귀한 열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제나 생산능력에서 선구자의 기상과 본래를 떨치는 가스창조적창과 수지마제창의 로동계급은 설비마다에 단가중, 만부하를 길기 때릴 전투적열풍 넘쳐 수행하였으며 후대의 장에서도 생산공정에 밀착시킨 조선민체의 최전진관직공급기계를 제작도입하여 후대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산공정용전기장악형, 로력집약형으로 개조된 대한 당정책을 인민당적 증산투쟁과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정춘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17건의 발명과 창의고안을 내놓고 어려운 전투과제들을 도맡아 수행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 놓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가 높이 휘날려나오게 하라

축하문은 당의 부름에 불붙을 불붙지 않는 남흥의 로동계급이 분발하는 로안에 서슴없이 뛰어들

어 생산성향의 동용을 지켜내고 자제일군들은 사후는 고지에 단약을 나르는 심정으로 연승공격에 방대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200일전투를 적극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첨단과학기술의 비약의 보충으로 들어온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 지있는 연구성과들로 생산공정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후대를 비롯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연합기업소의 청년전위들이 청년강국의 주인공, 창조적 기인당적 증산투쟁과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서 정춘의 승리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17건의 발명과 창의고안을 내놓고 어려운 전투과제들을 도맡아 수행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 놓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불타는 애국총정과 로력적위풍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대인 윤정국, 무기사상 김봉복, 직공장 한성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혁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더욱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감 결의를 피력하였다.

당의 믿음을 심장같이 간직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것과 함께 설비와 자재, 원료의 국산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첨단 연구과제들을 다짐으로써, 탄탄적으로 성공시켜 주체비료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연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여 화학공업발전에 쌓아올린 결실의 열매를 향하여 빛내이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력을 집중하자

당 중앙의 호소에 즉시 화답하여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전환시키고 군인대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총력투쟁에 제해지음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 200일전투를 북부지대의 큰포리해 복구하는데로 방향전환하도록 한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위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끄럼 없는 유족하고 행복할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경공업성 당조직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략적호소를 받은 추시에 당 및 행정일군들의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투를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으로 정하고 목표를 다시 세출에 대한 문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 일군

들이 앞장설데 대한 문제,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어넣어줄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부서단위로 지원사업을 용이하게 벌여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여 20여종의 이물류는 28종에 12만 5700여점의 생활필수품들이 마련되어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게 되었다.

식료일용품업성 당조직에서는 당의 호소에 걸맞은 즉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정성령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선, 인민부우전이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선동투쟁을 벌이게 하였다.

부서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우리 당이 려명기리전투를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급속하고 전향,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확실해지면서 이번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렵고 힘든 매일수속 서로

들고 뛰쳐나가는 계기로 되게 하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고무된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지원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22종에 7900여점의 생활필수품과 많은 의약품들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게 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불심방면의 아픔없는 지원을 하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앞세워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정무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불심방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과정에 좋은 의견들도 나왔다. 이 사업이 벌어지지 얼마후에는 성의껏 마련한 70여종에 6400여점의 생활필수품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지역에 보내주게 되었다.

일일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데서 우리가 기치를 들고나가자. 바로 이것이 보건설 당조직이 일군들과 정무원들에게 제기한 높은 요구사항이었다.

당조직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리하여 22종에 7900여점의 생활필수품과 많은 의약품들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게 되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설비와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기계공업부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대중당원회의 호소문을 받아안은 기계공업부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대중당원회의 호소문을 받아안은 기계공업부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대중당원회의 호소문을 받아안은 기계공업부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신발공업관리국에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기적적승리를 위한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신발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품을 버는 사람도 배고파서 굶어죽는 사람도 없게 하라.》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관리국일군들은 신발공장의 생산능력과 자재보유량, 수송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함에 기초하여 공장들에 생산과제를 합리적으로 할당하였다. 또한 있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공장들에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일군들부터가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관리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날의 신발생산투쟁이 단순한 긴급과제수행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동보통을 높이 말양시키기 위한 사업,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중산물건전의 일몰을 세

차게 일으켰다. 강서신발공장, 정양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보봉강신발공장, 정진신발공장을 비롯한 관리국아래 여러 신발공장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생산을 앞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예비는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 한시도 중단없는 중산물건을 밀어내며 맡겨진 신발생산계획을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였다.

결과 관리국에서는 단 하루동안에 수만켤레의 신발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보내줄수 있었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들으며 이들은 다시금 새겨안았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한 당의 호소로.

단 하루동안에 수만켤레의 신발을 생산보장한 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수십만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보내줄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는 가운데 신발공업관리국아래 생산현장들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줄기찬 생산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김 국 현

물동수송과 철길복구전투에서 련일 혁신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국 일군들과 로동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철도수송물과 철도복구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어내려도록 그들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세세게 벌여나가고있다.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 최전방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오가는 나라는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지성어린 물자들을 지체없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변방하게 짜고들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시사업에 따라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속에서 경건 당조직에서도 한 t의 식만, 한 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돈의 자급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중산물건들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수송설비이자 피해복구수속이다.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격전장마다 울려 퍼지는 혁명의 북소리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간 예술단체들의 활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봉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투쟁, 련속투쟁, 명중투쟁을 밀어내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에 예술단, 피비다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제전선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 군을 돌고있다. 1950년대 최선에 예술단체들이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



